

일본 도쿄(東京)박물관 소장 금산사 은입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

최응천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목차

1. 머리말
2. 고려 香垸의 기원
3. 고려 香垸의 변천
4.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
 - 1) 형태와 문양
 - 2) 향완의 명문
 - 3) 고려 향완의 범자
5. 맺음말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 은입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

금산사 향완은 어느 때인지 몰라도 법륜사 헌납보물로 등록 소장되어 오다가 현재는 동경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법륜사 보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비록 몸체가 사라지고 하부의 다리와 대부분이 남아있지만 남겨진 명문을 통해 고려 1178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섬세한 은입사 문양과 크기 면에서 표충사 향완에 버금가는 최상급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남겨진 명문을 통해 이 향완은 당시의 주불전이었던 金山寺 大殿, 현재의 미륵전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미륵불상 앞에 있었던 청동제 향완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최소 1178년 당시까지 미륵상이 봉안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향로를 분명히 香垆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제작자인 高正이라는 장인은 지금까지 다른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량이 매우 뛰어났던 입사 장인이었다고 추정된다. 명문에 발원자로 기록된 개경의 현직 관료가 등장하면서 전직 하급관료가 銀을 희사하여 함께 만든 것으로 미루어 중앙집권과 힘을 합쳐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지방 사찰 불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명문에 등장하는 기비사는 봉안처인 금산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유기종의 사찰로 판단됨으로써 기비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역사 등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필요케 되었다. 여기에 이 향완에 처음 등장하는 여지문과 변형된 쌍구의 당초문은 이후 고려 상감청자나 금속공예 문양에 새로운 시발점이 된 문양사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작이다. 노신에는 표충사 향완과 마찬가지로 4자의 원권 범자문이 시문되었을 가능

성이 많다고 유추된다.

고려 향완 연구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 금산사 향완은 명문의 중요성 뿐 아니라 소장 경위 등에 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법륜사 헌납보물, 동경국립박물관, 병향로, 고려시대, 고배형,
은입사 향완,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상, 고정(高正), 관장(官匠),
기비사, 유가종, 여지문, 당초문, 표충사 향완, 원권 범자문

1. 머리말

일본에는 현재 5점 정도의 고려 은입사 향로가 확인된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이 고려미술관 소장의 白月庵 향완(1164)이고 두 번째가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金山寺 향완(1178)이다. 이 외에 제작 년대는 확실치 않지만 양주 白雲寺의 명문을 지닌 일본 長谷寺 소장 靑銅銀入絲 香垵¹⁾, 네즈(根津)미술관 소장의 무명 청동은입사 향완이 전래되고 있다. 두 점은 대체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 작품으로는 일본 희메지시(喜

1) 이 향완의 구연 윗면에는 ‘襄州上白雲寺香垵’과 ‘洛山觀音殿口來納辛卯十二月日’이라는 두 종류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후자는 일본에서 추각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황수영전집』 4 금석유문(혜안, 1999), p.386.

路市) 거주의 제일교포가 소장한 至正17년명(1357) 향완이 확인된다. 이 작품은 총고 26cm 정도의 작은 크기이지만 구연 후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²⁾, 사찰명은 인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어 아쉬움을 준다.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로 편년되는 소형의 은입사 향완 한 점이 나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이처럼 비교적 수량은 적지만 일본에 소재한 고려 은입사 향완은 12세기 14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명문을 지닌 작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고려 향완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금산사 향완은 아쉽게 완형이 아닌 대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나 비록 단편적이긴 하나 여기에 입사된 유려하면서도 독특한 문양의 구성은 이 향완이 당시로서도 최고의 걸작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나아가 제작시기와 발원자, 특히 시납사원과 제작자를 기록한 명문까지 완전히 남아있어 고려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산사 향완이 제작된 시기의 향완과 비교 분석하여 비록 사라졌지만 노신의 문양을 유추해 보고 남아있는 문양의 양식적 특징, 그리고 명문을 분석하여 금산사 향완이 지닌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2) ‘至正十七年二月○○○○聖衆殿香완施主朴龍妻藥加氏桓氏同願朴椿石○那斤乃溫大元李氏得龍万月鄭舟鳳叻通都亦朴氏安氏○彦佛守德夫伊李彦○伊夫金加

2. 고려 향완의 기원

향이란 본래 산스크리트어인 간다(Gandha)를 번역한 것으로서 원래 고온다습한 인도에서 악취를 없애고 해충을 쫓거나 실내의 습기를 제거하고자 쓰였던 것이다. 이를 담아 향을 불살라 연기를 피우는 그릇이 바로 香爐이다. 나아가 雜鬼나 雜念까지도 제거해준다 하여 절에서는 물론 각종 제사 의례에도 사용되었다. 이것이 점차 수행자들이 지니던 필수품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 불교의 성립과 함께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공양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향을 담고 피우기 위한 香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기원전에 해당되는 중국 漢代에 이미 청동기로 제작된 박산향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박산향로가 전래된 사실을 옛 樂浪地域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삼국시대의 고구려 雙楹塚 古墳壁畫 行列圖에 보이는 머리에 인 향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향로의 본격적인 제작과 사용은 역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斷石山 神仙寺의 磨崖像 가운데 손잡이 달린 향로를 잡고 공양하는 조각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 외에 1993년도 扶餘 陵山里 절터에서 완벽한 상태로 발견된 백제 金銅龍鳳香爐는 삼국시대에 직접 절에서 사용된 향로의 실례를 증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³⁾

이처럼 삼국시대 이후 佛教供養品으로 꾸준히 제작되기 시작한 우리의 향로는 그 용도와 형태면에서 크게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신라 麟角寺, 末屹里 출토품 같은 손잡이 달린 柄香

3) 최응천·김연수, 『금속공예』(술출판사, 2004), pp.130~165.

爐와 佛壇에 놓이는 居香爐(置香爐), 그리고 걸어두는 懸香爐⁴⁾ 등이 있다.⁵⁾ 居香爐는 다시 博山形, 鼎形, 火舍形(多足形), 高杯形으로 나누어지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한 高杯形 香爐, 즉 香垸이다.

고려시대의 고배형의 형태를 지닌 香垸이란 口緣이 밖으로 벌어져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아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으로 구성된 형식으로서 대부분이 몸체와 다리 부분을 따로 주조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향로는 명문에 보이듯 특별히 ‘香垸’이라 불렀다. 이러한 향완의 기원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려 향완에 가장 먼저 연구를 진행한 황수영 선생은 고려 향완의 명문 중에 완(垸)으로 기록된 명칭에 착안하여 垸이 바로 바리나 그릇을 가리키는 椀·罍 등과 모두 동음이라는 점에서 주발과 같은 기명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그 형태의 원형이 전시기에 만들어진 陶土器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였는데⁶⁾, 이는 고고학자인 김원룡 선생도 유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고려시대 향완과 흡사한 청자 향로의 기원이 백제의 특수형 토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기가 통일신라 이후에도 특수한 전통으로 남아 후대 불교의식에 채용되어 향완이라는 독특한

4) 懸香爐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동안 慶熙大博物館 소장품이 유일하였으나 淸州 思惱寺址에서 2점의 원형 현향로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2점 모두 저부가 둥근 계란형의 몸체 위로 투각 장식과 보주형 꼭지가 돌출된 뚜껑이 덮이고 몸체 양 옆에 부착된 귀와 연결되어 구름모양의 굴곡진 손잡이가 위로 달려있는 모습이다. 崔應天, 『思惱寺 遺物の 性格과 意義』, 『고려궁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pp.136~153.

5) 清水 乞, 『佛具辭典』 (東京堂, 1983), p.54 및 藏田 藏, 『日本の美術』佛具(至文堂, 1967.8), pp.40~43.

6) 황수영, 앞의 논문, 1963, pp.417~418.

기형을 창출했다고 보았다.⁷⁾

김창균 역시 황수영 선생의 견해를 반영하여 爐와 垸의 구분은 기형에 의한 것이지만 명문에서 비롯된 명칭은 향로와 향완이 같이 쓰이고 있어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역시 그 기원은 통일신라 토제 고배에서 보고자 하였다.⁸⁾

이러한 기존의 학설에 반하여 통일신라 건물에서 출토되는 奉爐 飛天文 암막새에 보이는 고려 향완의 노신과 유사한 향로의 예를 들어 향완의 전형이라고 유추한 예도 있다.⁹⁾ 여기에 주경미는 현존하는 향완의 기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기형은 토기에서 발달한 高足 盃 형식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향완의 발전은 중국 唐末 五代期의 불단용 및 공양자용 등 불교의례용 향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단형의 기대와 전이 달린 몸체, 寶珠紐가 달린 뚜껑 등이 통일신라 말기부터 한국에 전해져 10세기 이후 토착화된 독자적인 형식이 발전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¹⁰⁾ 그러나 이 설 역시 중국에서 이른 시기의 고려 향완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북송과 요의 백자 향로와 같은 유사한 시기의 도자 향로만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도 고려 이전의 통일신라에 유행했던 柄香爐에서 향완 형태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설도 제기되었지만¹¹⁾ 병향로는 형태의 특

7) 김원룡, 「百濟土器와 高麗青磁香爐 : 地域的 器形의 繼承」, 『미술자료』 32(국립중앙박물관, 1983), pp.43-45.

8) 김창균, 「韓國青銅銀入絲香垸의 研究-高麗時代 高杯形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9(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p.7~8.

9) 지강이, 「신라시대향로 연구」(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주경미, 「高麗時代 香垸의 起源」, 『미술자료』 68(국립중앙박물관, 2002), pp.33-58.

11) 구민정, 「高麗時代 香垸 連丘」(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사진 1〉 彌勒寺址 출토 수각향로,
통일신라 7세기 후반,
높이 30.0cm



〈사진 2〉 봉업사지 출토 靑銅香爐,
고려 11세기, 높이 87cm,
삼성미술관 리움

성상 居香爐인 향완과는 쓰임새가 워낙 다르고 특히 고려시대까지 병향로가 꾸준히 계승된 점을 들어 이 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필자는 통일신라 彌勒寺址 출토 수각향로(사진 1)의 조형을 발표 하면서 통일신라의 여러 석조물의 부조 조각으로 남아있는 삼족형 향로를 계승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청동제의 삼족형 향로(사진 2)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삼족이 사라지면서 고려 향완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¹²⁾ 여기에 이용진은 필자의 통일신라 삼족향로 발전설과 주경미의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중국

12) 최용천, 「彌勒寺址출토 金銅手脚香爐의 造形과 特性」, 『동악미술사학』 9(동악미술사학회, 2008), p.193



〈사진 3〉 흥천 물걸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중대석 향로 부조, 통일신라 9세기

전래설을 인용하여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³⁾ 통일신라 향로의 고려 향완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유물로 흥천 물걸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석조 대좌 중대석에 새겨진 향로(사진 3)를 언급하였는데¹⁴⁾, 원형 받침에 나팔형 간주, 원통형의 노신과 노신 중앙의 원형 장식이나 문양 표현을 들어 이러한 유형의 형로가 고려시대 향완의 원형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⁵⁾ 이처럼 고려시대 향완의 기원은 통일신라의 향로를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뚜껑이 사라지는 것

13) 李溶振, 「韓國 佛教香爐 研究」(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용진, 「高麗時代 佛教香爐의 傳統性과 獨創性」, 『동악미술학회』 23(동악미술학회, 2012), pp. 156~160.

14) 통일신라 석조물에는 다양한 형식을 지닌 거향로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9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상 대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5) 이용진, 앞의 논문, 2011, pp. 178-179.

은 기존의 연소방식인 노신에 숯을 넣고 향을 태우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고려에 수용되어 香垸의 뚜껑이 사라진 것이라 생각된다.¹⁶⁾ 삼죽의 다리 역시 주조의 번거로움과 안정적인 기형에 바람직한 지금의 향완과 같은 평편한 대부를 지닌 기형이 자연히 선호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고려 香垸의 변천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국가 중심의 거대한 佛事도 이루어졌지만 귀족들에 의한 소규모의 發源이 널리 이루어져 귀족적인 면모와 화려한 품격을 지닌 금속공예 분야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전대부터 이어온 입사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금속 공예품에서 더욱 정교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고려의 금속 공예의 장인과 같은 특수 수공업자들은 중앙 관저에 직접 예속되어 다양한 기물 뿐 아니라 발원에 의한 불교 공예품도 직접 제작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불교공예품 가운데 香爐와 淨瓶은 고려시대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가장 세련된 형태와 문양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향완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사발형의 노신과 나팔형의 간주 그리고 둥근 원반형 받침을 둔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향완의 표면에 문양을 파내고 은사를 얇게 꼬아 문양에 넣는 은입사 기법을 사용하여 범자문, 당초문, 용문, 봉황문을 시문하였다. 간혹 물가의 풍경을 묘사한 회화적인 문양이 장식되기도 한다.

16) 이용진, 앞의 논문, 2011, pp.179.



〈사진 4〉 皇統 4年銘 靑銅香, 고려 1144년, 높이 16cm, 경희대박물관

고려시대 향완의 가장 이른 예는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皇統4年(1144) 靑銅香垵(사진 4)으로서 노신과 간주에는 간략한 음각선만 들렀을 뿐 문양은 시문되지 않았다.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1081년의 명문을 지닌 奉業寺 香垵도 확인된다.¹⁷⁾ 『高麗史』 卷11 肅宗 己卯4年(1099)에 왕이 왕비와 관료들을 데리고 三角山 僧伽窟에 가서 재를 올리는 동시에 銀香椀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¹⁸⁾, 여기에서 말한 ‘銀香椀’은 숙종이 僧伽窟에 시주한 은입사향완으로 해석된다.¹⁹⁾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고려 은입사향완은 11세기 후반부터 이미

17) 奉業寺 香垵은 경기도 안성시 봉업사에서 일괄 출토된 약 60여 점의 금속불구 중의 하나로서, 현재 소재는 미상이다. 명문은 향완의 구연 안쪽 면에 1행이 음각되어 있다. : 황수영전집 간행위원회,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혜안, 1999), p.376.

18) 『高麗史』 卷11 世家 肅宗 己卯年 潤九月條, ‘王率王妃元子兩府群僚及祐世僧統幸三角山 閏月. 壬申 次常慈寺 甲戌 幸僧伽窟設齋 仍施 銀香椀手爐各一事’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大定4年(1164) 白月庵 靑銅銀入絲香垵(사진 5)은 현재 남아 있는 기년명 향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 향완의 기형은 노신과 나팔형의 간주, 안정적인 간주받침으로 형성되어 있다. 외반된 구연부는 그 외연을 둥근 테두리로 말아 감쌌으며 이 넓적한 전부를 돌아가며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옆으로 비행하는 모습의 봉황을 위, 아래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雙句體의 유려한 구름을 3개씩 도합 6곳에 은입사 하였다. 노부의 바깥 면은 커다란 이중의 圓圈으로 둘러진 梵字文帶를 4곳에 배치하고 그 내부에 폭넓은 面入絲로 각 1자씩 4자의 梵字가 시문되었다. 원권에는 如意頭文과 같은 종속 문양 없이 안쪽 원권 바깥으로 한 줄의 唐草文만을 두른 소략한 문양구조를 보이고 있어 고려 후기 향완과 많은 차이점이 느껴진다. 범자 사이에는 봉황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향완에 시문된 봉황문이 대부분 옆으로 나는 형상이거나 한 쌍의 봉황을 대각선으로 대칭시키는 반면에 백월암 향완은 위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점이 주목된다. 다리의 상부 횡대에 바로 붙어 연판 내부마다 당초문이 장식된 8엽의 연판문을 둥글게 돌아가며 시문하였고 하부의 여백 면에는 역시 봉황문과 운문을 번갈아가며 드문드문 은입사

19) 최용천, 「東大選과 高麗時代의 美術-工藝」, 『講座美術史』 1(한국미술사연구소, 1988), pp.161-162; 이용진, 앞의 논문, 2011, p.180.

20) '大定四年丁卯八月日白月庵香垵棟梁女旭' 대정4년은 1164년인 高麗 毅宗18년이지만 그 간지는 丁卯가 아니고 甲申年에 해당된다. 백월암의 소재는 분명치 않으나 東國輿地勝覽 卷19 靑陽縣 佛宇條에 「淨蓮寺 白月菴俱在白月山」의 기록이 보인다. 황수영, 「高麗時代靑銅銀入絲香垵의 研究」, 『佛教學報』 1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1963), p.429; 최용천, 「日本에 있는 韓國文化財 17 - 京都 高麗美術館所藏 大定4年銘 香垵」, 『박물관신문』, 1994. 6. 1.; 이수혜, 「고려미술관 소장 청동은입사향완에 대하여」, 『高麗美術館研究紀要』 4(고려미술관연구소, 2004), pp.67-72.



〈사진 5〉 大定4年 白月庵銘 靑銅銀入絲香,
고려 1146년, 높이 26.5cm,
일본 高麗美術館



〈사진 6〉 大定17年銘 靑銅銀入絲香,
고려 1177년, 높이 27.5cm,
表忠寺

하였다.²⁰⁾ 명문은 맨 아래의 직립 받침부를 돌아가며 은입사하였다.

고려 은입사 향완은 12세기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문양이 정립되는 시기로서 받침부터 구연의 전까지 각 부분에 문양이 시문될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것에서부터 당시에 유행하던 문양까지 종류도 다양한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

大定17年銘(1177) 靑銅銀入絲 香壇(사진 6)은 노신의 받침인 蓮瓣文帶가 나타나는 가장 이른 예이다. 노신에는 범자와 연판문 외에 문양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간주에는 한 마리의 용이 둥글게 휘돌아가며 감싸고 있는 유려한 모습이다. 이러한 운룡문은 향로에서 자주 등장되며 이 향로는 그 원형이 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처럼 노신과 전에 범자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이 향완과 貞祐6年(1218) 社福寺銘 靑銅銀入絲 香壇만이 유일한 예이다.



〈사진 7〉 大定18年 金山寺銘靑銅銀入絲香, 고려 1178년, 높이 28cm,
東京國立博物館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大定18年(1178) 金山寺銘 銀入絲 香垵 (사진 7)은 이보다 한해 뒤에 만들어진 기년명 작품이다. 현재 완형이 아닌 대부분이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크기로 보아도 이 향완은 고려시대 향로 가운데 가장 큰 크기였다고 짐작된다. 이 향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남아 있는 연판문대를 살펴보면 大定17年銘(1177) 香垵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간주에는 여지문과 약간 변화된 당초문이 등장된 새로운 경향을 보이며 가장 아래에는 복련의 연판문이 시문되었다. 이러한 연판문대의 표현은 貞祐2年(1214) 慈孝寺銘²¹⁾ 靑銅 銀入絲香垵에서도 나타난다. 이 향완에서부터 간주의 길이가 길어지고 2단의 원릉대가 확실히 나타

21) ‘貞祐二年丙子七月 日慈孝寺住持比丘 趣 願堂威縣 寺講堂排入絲靑銅香垵 壹入重陸斤拾兩造納’

나기 시작하여 13세기에 만들어진 己丑年興王寺銘 銀入絲香壇과 通度寺銘 銀入絲香壇, 咸平宮主房銘 銀入絲香壇 등으로 계승된다. 나팔형의 간주에는 복련의 연판문과 연화당초문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노신의 연화당초문 표현이 통도사 향완과 거의 비슷하지만 노신의 4개의 범자문은 이중의 원문이 있으며 외곽에는 아직 여의두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貞祐6年(1218) 社福寺銘 銀入絲香壇은 전의 뒷면에 53자의 명문이 음각되었다.²²⁾ 나팔형의 간주에는 각기 다른 모양을 한 연화문 5개가 당초문과 함께 입사되었고 2단의 원룡대는 당초문과 雙葉七寶文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쌍엽의 칠보문은 大定17年銘 香壇에 가장 먼저 나타나며 사복사명 향완뿐만 아니라 보물 334호 通度寺銘 銀入絲香壇(13세기)의 노신반침과 원룡대에 표현되어 있으며 傳龍門寺 銀入絲香壇의 간주에도 나타난다. 특히 노신의 범자를 둘러싼 3중의 원권에 처음으로 如意頭文이 사용되기 시작한다.²³⁾

이처럼 13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의 향완의 특징은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에 시문된 모든 문양들이 모두 등장되는 고려 향완의 가장 전성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2세기 후반까지 나타났던 문양들이 확대 적용되는 시기이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양의 변화는 노신

22) '貞祐六年戊寅三月吉日謹記香爐香合社福寺喜捨國泰民安世子壽命延長合祈佛弟子王都廉贈子女平安家清萬事成百日祈祭' 조성현, 「靑銅銀入絲 貞祐六年社福寺銘香壇」,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1996), p.238. 그러나 근래 이 향로의 명문이 음각된 서체와 내용이 기존 고려 향완과 매우 달라 후대에 새겨졌을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23) 선과 세선의 이중 원안에 범자가 표현되는 모습은 貞祐2年 慈孝寺銘 銀入絲香壇(1214)까지 지속되지만, 이 향완부터는 여의두문을 두른 원권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는 구연에 범자가 사라진다. 이용진, 앞의 논문, 2011, p.183.



〈사진 8〉 己丑年 興王寺銘 青銅銀入絲香,
고려 1229년, 높이 38.1cm,
리움



〈사진 9〉 至正4年 重興寺銘 青銅銀入絲香,
고려 1344년, 높이 33.5cm,
불교중앙박물관

에 은입사 되는 梵字의 문양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1218년에 제작된 이 香壇의 여의두문의 문양은 고려시대 銀入絲 香壇의 양식 변화에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이러한 문양 형식은 고려시대 청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己丑年 興王寺銘 銀入絲香壇(사진 8)은 이전의 향완들과는 달리 노신과 간주의 길이가 세장해지며 다른 청동은입사향완처럼 정형화된 패턴의 범자문 대신 노신에 봉황문과 용문, 포류수금문등이 세선으로 입사되었다. 노신의 받침은 1단이고 운문이 시문되었으며 1단의 원통대는 원심형문이 둘러져 있다. 간주에는 변형당초문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 향완의 명문을 살펴보면 己丑年 2월에 興王寺의 學徒 大德, 進禮郡, 副戶長, 金孚 등이 마음을 같이하여 발원하여 제작하였으며 개경에 소속된 金彦守란 장인이 만

들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 향완은 사찰에서 제작하였으나 범자 없이 용과 봉황문 등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주로 입사된 점이 주목되며 개경 김언수라는 장인은 국가에 소속된 官匠이었다고 추정된다.²⁵⁾

이후에 제작되는 至正 년간의 향완들은 형태와 문양이 정형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이 향완들의 기본적인 기형은 간주받침이 2단이며 짧아진 간주와 1단의 원륜대와 간주 받침이 두드러져 둔중해 보이며 13세기 향완에 나타나던 연판문대가 사라지면서 연판문이 입사된 점이 비슷하다. 여기에 문양에 있어서는 구연부 전의 윗면에는 모란당초문, 전의 측면에는 雷文이 은입사되며, 노신에는 여의두문과 이중원 안에 4자의 梵字, 梵字 사이에는 연화당초문, 노신 하단부에는 연판문, 나팔형 간주에는 모란당초문과 복련의 연판문을 은입사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至正4年(1344) 重興寺銘 銀入絲香垸(사진 9)은 2단의 간주 받침에 流雲文과 여의두문, 변화된 당초문이 차례로 입사되었다. 간주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연화당초문이 입사되었는데 구연부의 전에도 여러 모양의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었다. 노신의 받침에는 여의두문과 변형 당초문이 시문되었다.

至正6年(1346) 上院寺銘 靑銅銀入絲香垸은 전체적인 문양은 비슷하나 원륜대와 간주에 연화당초문 대신 용문양이 운문과 함께 시문된 점이 색다르다. 그리고 간주받침의 아랫단에 명문이 시문되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지정년간에 제작된 거의 대부분의 향완에 나타난다. 이보다 조금 뒤에 만들어진 至正12年(1352) 龍藏禪寺銘 靑

24) ‘己丑二月日興王寺學徒大德文日進禮郡副戶長全孚等同心發愿在京金彥守造’

25) 최웅천, 「고려시대의 금속공예의 장인」, 『미술사학연구』 241(한국미술사학회, 2004), pp.171~192.

銅銀入絲香垵은 1단의 원룡대가 나타나면서 위, 아래에 낮은 장식대와 전의 뒷면에는 오리와 流雲文이 시문된 점이 특이하다.²⁶⁾ 전의 뒷면에는 대부분 명문을 시문하거나 문양은 따로 입사하지 않는데, 향완 중에서 전의 뒷면에 입사가 된 경우는 현재 이 향완이 유일하다.

일본 희메지(喜路市) 개인 소장 至正17년명 향완(1357, 사진 10)은 외반된 전부 상면에는 굴곡진 雙鉤體의 줄기를 등글게 배치하고 그 사이 여백마다 연잎을 시문하였으나 圖式化가 많이 진전되었다.²⁷⁾ 등글게 말아 감싼 전부 외연에는 중홍사 향완과 마찬가지로 雷文을 돌렸다. 노신부의 사방에는 2중으로 된 圓圈帶를 배치하여 그 안으로 4자의 梵字文과 주위에 如意頭文을 등글게 장식하였다. 원권과 원권 사이의 여백에는 S자로 굴곡진 줄기 사이에 상하로 만개된 연잎을 사면에 동일하게 장식하였다. 노부 저면에는 14세기 雲文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흑처럼 돌기가 달린 도식화된 운문을 띄엄띄엄 배치하였고 臺部의 상단에는 鼓覆形의 턱을 만들어 이곳에 七寶文을 새겼다. 이 아래 옆으로 퍼진 짧은 다리에는 노부와 동일한 蓮唐草文을 입사하였으나 옆으로 굴곡을 이루며 전개되어 나갔고 그 크기도 조금 커졌다. 다시 하단부의 몰딩을 이룬 대부 받침에는 역시 爐部 하부에 시문된 운문과 동일한 형태의 운문을 등글게 돌아가며 은

26) '至正十二年壬辰閏三月日 龍藏禪寺 無量壽殿大香垵大功德主 崇祿大夫資政院使高龍寶 永寧公主辛氏大化主 慧林 戒休 景眞 錄者性謙 縷工' 명문은 至正 12년 임진년 윤3월 모일에 용장선사 무량수전의 큰 향완으로 만들어져 大功德主는 崇祿大夫資政院使 高龍寶, 永寧公主, 辛氏이며 大化主는 慧林, 戒休, 景眞이고 기록한 사람은 性謙이며 입사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향완은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평양에서 온 국보들에 전시된 적이 있다.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국립중앙박물관, 2006), 263p.

27) 최웅천, 「日本에 있는 韓國文化財 19 - 姬路市 金龍斗氏 所藏 至正十七年銘 香垵」, 『박물관신문』, 1994.9.1.



〈사진 10〉 至正17年銘 靑銅銀入絲香,
일본 히메지(喜路市) 개인 소장, 고려 1357년.
높이 28.1cm

입사하였다.

이보다 일년 뒤에 만들어진 至正18年(1358) 消災寺銘 銀入絲香 壇은 현재 영국 브리티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⁸⁾ 이 향완은 금산사 향완처럼 간주와 대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짧아진 간주와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이 지정년간 향완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향완의 현재 남아있는 간주의 노신 받침이 위로 돌출되어 노신과 연결되도록 만든 점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조선 전기 靑谷寺 은

28) ‘至正十八年戊戌六月日毗瑟山消災寺地藏前香壇主上殿 下萬萬歲公主殿下壽千秋王后殿下壽無疆天下大平大功德主妙海化主海’ 至正 18年 무술년에 6월일에 毗瑟山 消災寺 地藏菩薩 앞에 바치고자 만든 향완으로서 주상전하, 公主殿下의 壽千秋, 王后殿下의 만수무강 및 천하가 태평하기를 기원하였고 大功德主는 妙海, 化主는 達海이라는 내용이다.

입사향완(1397)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별도로 노신을 결합하는 편리한 방법을 채용하였지만 오히려 상부인 노신이 분리되기 쉬울 수밖에 없어 하부만이 남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지금껏 노신에 연판문이 시문되었던 것과 달리 노신 받침에 연판문이 새겨진 점도 주목된다.

至正26年(1366) 眞宗寺銘 銀入絲香垸은 소재사 향완과 달리 간주 부분이 노신과 기형이 맞지 않아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신은 외곽에 여의두문을 장식한 4개의 범자문과 연화당초문, 연판문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문양과 기형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원래의 간주와 원릉대의 형태는 현재 알 수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14세기 후기의 향완은 노신의 폭이 넓어지고 臺部의 나팔형 다리가 매우 짧아지면서 옆으로 갑자기 벌어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둔중해진 대부와 투박한 형태의 대부받침은 靑谷寺 향완(1397)과 같은 조선시대 향완으로 계승을 이루게 된다.

4.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

1) 형태와 문양

이 향완은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의 별관인 法隆寺 寶物館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법륭사 보물관은 법륭사의 獻納寶物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1964년 개관된 특별전시관으로서 아스카시대(飛鳥時代)로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에 이르는 319건의 조각·회화·서적·전

적류 및 佛具·악기·문방구·무기류·복식류 등의 중요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에 있어 쇼소잉(正倉院) 유물들과 필적할 만한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물로는 이 향로 외에도 三國時代에 제작된 甲寅銘光背(594)가 예전부터 익히 알려져 학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향로는 비록 몸체인 爐部가 결실되고 간주로 연결된 臺部만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작품이지만 높이 27.8cm, 저부 직경이 34.7cm에 이르는 현재의 크기만으로 미루어도 현존하는 고려 향완 가운데 가장 대형에 속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사진 11) 대부분의 고려 향완은 爐部和 臺部를 별도로 주조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향로 역시 노부 받침의 내면 중앙에 그러한 연결부를 볼 수 있으나 그 크기가 대형이었던 관계로 일반적인 향완과 달리 중앙에 둥글게 뚫린 구멍이 있어 이곳에 노부 밑바닥의 돌기부를 끼워 결



〈사진 11〉 大定18年 金山寺銘青銅銀入絲香



〈사진 12〉 금산사 향완의 대부 상부면

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돌기부의 주위는 그 끝단이 살짝 돌출되어 턱을 이루었으며 아래쪽으로는 주물이 흘러내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12)

현재 남아 있는 향완의 형태는 크게 노부 받침과 나팔형의 간주, 그리고 대부와 받침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일 상단의 노부 받침은 2단의 물딩형 턱으로 이루어져 폭이 넓은 윗 단에는 각 연잎마다 꽃술 장식이 첨가된 仰蓮의 蓮瓣文을 주회시켰고 그 아랫단에는 雷文을 은입사 하였다. 이러한 뇌문은 11세기에 나타나는 뇌문에 비해 도식적이지 않은 정형화된 모습이다. 뇌문 바로 아래의 작은 턱에는 가는 세선의 당초문을 시문하였으며 노부 받침의 다리와 연결되는 둥근 턱 부분에는 양 꼬리가 길게 늘어진 도식적 형태의 운문이 둥글게 돌아가며 연결되었다. 아래로 가면서 점차 벌어진 11.3cm 높이의 늘씬한 다리에는 高麗 象嵌青磁문양



〈사진 13〉 대부의 다리 여지문

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유려한 형태의 荔枝文이 둥글게 돌아가며 은입사 되었다. 이 여지문의 구성은 세 개가 십자형으로 갈라져있는 열매를 중심으로 그 머리 쪽에 역시 굴곡진 세 개의 잎이 연결된 매우 유려한 형태이다. 특히 여지 열매의 테두리와 잎의 외곽 테두리 부분을 두터운 세선의 입사로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여지 문양은 고려 은입사 향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양이지만 당시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이후 상감청자에까지 널리 활용되었다.²⁹⁾(사진 13)

한편 다리의 하단부는 몰딩형 턱을 이루다가 직립된 대부 받침과 연결되었는데, 상부에는 雙鉤의 唐草文을, 그리고 그 아래의 직립 받

29) 여지는 당시 송과의 무역을 통해 전래된 열대과일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지문에 대한 연구는 조성현, 「고려시대 여지문 과대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2 (삼성미술관 리움, 2006), pp.11-28 ; 이윤진, 앞의 논문, 2011, p.202.

침부에는 一條로 구성된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이 받침 아래 부분은 다시 넓게 퍼지다가 2단의 굴곡을 이루며 대부의 받침을 만들었고 이 두 단을 연결하면서 꽃술 장식이 첨가된 伏葉의 蓮瓣文을 상단에 시문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연판문은 상부의 노신 받침과 달리 하단이 굴곡을 이룬 방형 연판이지만 내부의 꽃술 장식은 동일하다. 제일 아래 단에는 은입사로 89字에 이르는 銘文을 전체를 돌아가며 새겼는데 글씨체는 방정한 楷書體로 또렷이 기록되어 관독이 용이한 편이다.(사진 14)

향완의 밑바닥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다른 향완과 달리 내부 중앙부가 움푹 파여 들어가 있으며 그 양단에 돌기를 만들어 구멍을 뚫은 고리가 달려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향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방식은 하부가 빠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장치로 추정되지만 용도는 명확치 않다.(사진 15)



〈사진 14〉 금산사 향완의 대부 은입사 명문 세부



〈사진 15〉 금산사 향완의 내저면 돌기

대정 17년명의 표충사 향완을 시작으로 금산사 향완은 바로 고려 시대 은입사 향완에 나타나는 문양이 정립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받침부터 구연의 전까지 각 부분에 문양이 시문될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것에서부터 당시에 유행하던 문양까지 종류도 다양해진다. 大定4年 白月庵銘 銀入絲香垸에 비해 은입사와 문양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표충사 향완에 보이는 용의 뿔과 발톱, 연판문의 테두리 등에 太線을 쓰는 기법은 여지문과 잎맥 테두리에 태선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白月庵銘 香垸에 표현된 간주 상단의 연판문은 나타나지 않지만 노신 받침과 대부 받침에 각각 양련과 복련에 서로 다른 형태의 연판문을 시문한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특히 용문이나 칠보문, 여의두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여지문이 등장되는 점이 색다르다. 이것은 대정 17년명 향완에서 연결되는 문양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서 아직 시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12세기 후반에 들

어오면 여의두문은 청동은입사향완을 비롯해 정병과 청동반자 등의 불교공예품에 널리 시문된다. 또한 받침 상단에 시문된 쌍구의 변형 당초문은 금산사 향완에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후 13세기 초의 금고 외곽 문양에 다시 등장되고 있어 당시 장인 사회의 전승과 교류를 말해준다.³⁰⁾

고려시대 향완은 大定4年銘 향완에서 梵字와 간주의 연판문이 확립되었고, 大定17年銘 향완에서 노신 하부의 연판문과 여의두문, 大定18年銘 향완에서는 변형 당초문이 처음으로 시문되어 이후 제작된 향완의 기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향완의 명문

大定18年 金山寺銘 青銅 銀入絲香垸의 대부 받침 하단에는 유려한 필치의 명문을 둥글게 돌아가며 은입사하였다.(사진 16)

大定十八年戊戌五月日造金山寺大殿彌勒前青銅香垸一座台具都重三十斤入銀八兩棟梁祈毗寺住持三重大師惠琚金山寺大師仁美京主人郎將金令候妻崔氏伊次加女納絲殿前尚乘府內承旨同正康信鑄成高正³¹⁾

이 내용을 풀이해 보면 대정 28년 무술년 오월일에 금산사 대전 미륵불앞에 청동향완 한 구를 조성하여 갖추었으며 30근의 중량과 입사에 은 八兩이 들었고棟樑은 祈毗寺의 주지 三重大師 惠琚 金山寺

30) 최웅천, 「高麗時代 青銅金鼓의 研究-특히 鑄造方法과 銘文分析을 中心으로-, 『佛敎美術』9(동국대박물관, 1988), pp.80~81

31) 『黃壽永全集』4 금석유문(해안, 1999), pp.377-378.



〈사진 16〉 금산사 향완 대부의 하단 받침 은입사 명문

大師仁美이며 개경에 사는 郎將 金令候妻와 妻 崔氏와 그 딸이 발원하였다. 前 尙乘府의 內承旨 同正인 康信이 은을 시주(納絲)하였고 만든 이는 高正이라는 내용이다. 즉 향완은 고려 明宗 8년인 1178년에 金山寺大殿(彌勒殿으로 추정)의 彌勒佛像 앞에 있었던 청동제 향완이라 하여 당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향로를 분명히 향완으로 칭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처럼 供養法具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록한 경우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日月寺銘 靑銅鉢盂에서도 「(上略) --日月寺金堂大輔處觀音前母鉢盂(下略)」라 하여 금당의 보처 관음상 앞의 발우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향완의 중량은 30근이지만 銀入絲에 사용된 銀 8량을 별도로 기록한 점이 흥미롭다. 아마도 당시로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은이 동원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棟梁으로 기록된 祗毗寺³²⁾의 소재는 『東國輿地勝覽』 등에도 보이지 않아 이미 그 전 시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

비사의 住持가 三重大師의 법계³³⁾를 지닌 惠琚³⁴⁾라는 점은 상당히 사세가 컸던 절임을 말해주며 여기에 金山寺 대사 인미가 동량으로 함께 참여한다. 金山寺는 삼국시대 이후 꾸준히 법등을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로서 특히 고려시대에는 瑜伽宗의 중심 사찰이었던 점에서³⁵⁾ 두 사찰 사이에 밀접한 교류와 연관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게 볼 때 기비사 역시 금산사와 마찬가지로 유가종 사찰로 추정된다.

금산사의 미륵상은 금산사가 임진왜란 때 함께 소실되어 그 원형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眞表律師眞身藏骨塔碑銘(1199)에 彌勒丈六像을 3層殿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³⁶⁾ 따라서 향완에는 그보다 앞서는 1178년에 대전 미륵상 앞에 봉안하였다는 향완의 명문을 통해 이미 전 시기부터 금당의 역할을 했던 삼층 대전과 미륵장육상이 존재한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준다. 여기에 개경에 사는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郎將의 직급을 지녔던 金令候, 그의 부인인 崔氏와

32) 祇毗寺의 창건과 폐사에 관한 문헌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其比峴’이라는 명칭이 확인된다.(其比峴：東萊縣 [산천]其比峴：현의 서쪽 8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23, p. 351.) 이 ‘기비현’은 구포에서 동래로 넘어가는 만덕고개를 의미하여 만덕고개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비사의 이름을 따서 고개의 이름을 기비현으로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下)』(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597.

33) 僧科의 大選에 합격하면 大德이 되고, 그 뒤 大師 - 重大師 - 三重大師의 승계를 받게 되는데 삼중대사 이상은 王師나 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34) 고려 초기의 광종대의 고승이었던 惠居(?~974: 광종 25)와 동명이지만 한자도 다르게 활동시기가 다른 승려로서 아직까지 그의 행적은 고려사와 같은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35) 고려시대의 주요한 瑜伽宗 사찰로는 玄化寺를 비롯해 海安寺, 天興寺, 水多寺, 三川寺, 修理寺, 月岳寺, 法泉寺, 金山寺 등이고 이중 法泉寺와 金山寺는 지방사원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허홍식, 『高麗佛敎史研究』(일조각, 1997), p.218.

36) 미륵전 건물은 정유재란 후 불에 타서 소실된 후 재건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3층의 重層佛殿이다. 『김재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문화재청, 2001), p.102

딸이 발원하였다는 내용과 별도로 銀을 시주(納絲)한 前 尙乘府의 內承旨同正 康信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尙乘府의 內承旨는 殿前副承旨와 함께 왕의 호종, 왕명 전달 등을 담당했던 掖庭局에 소속된 南班職의 하나로서 정9품 아래 소속된 초급관리이다. 이를 통해 개경의 현직 관료와 그의 식구들이 발원하고 전직 하급관료가 銀을 회사하여 당시 지방 사찰의 주지들이 동량으로 만든 당시 지방 사찰 불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이 향완에는 제작자로서 高正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놓은 점에서 고려 금속공예의 장인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된다. 비록 고정이가 만든 다른 공예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금산사 향완의 세련된 형태와 정교하면서도 유려한 은입사 문양을 통해서 볼 때 당시로서 최고의 기술을 지닌 장인이었다고 추측된다.

(실측치 : 總高 28.0cm , 口徑 29.0cm , 底徑 35.5cm)

3) 고려 향완의 범자

고려 향완 가운데 범자가 장식된 가장 이른 예는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된 大定4年(1144) 白月庵 靑銅銀入絲香垵이다. 이 향완의 몸체 사면에는 이중 원권으로 둘러진 은 네 면에 이중원문이 2개씩 범자를 감싸고 있으며 범자는 면입사로 두껍게 시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범자는 노신에 꾸준히 등장하게 된다. 초기에는 이중원문이 두 개씩 겹쳐서 나타나다가 大定17年銘(1177) 표충사 향완에 이중원문이 태세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중원문 외곽에 여의두문은 貞祐6年(1218) 社福寺銘 靑銅銀入絲香垵부터 나타나 이후 제작된 향완의 범자문에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고려시대 향완은

노신뿐만 아니라 구연의 전에 일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비록 금산사 향완은 노신부가 남아있지만 원래의 범자문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치 않다. 다만 그 1년 전에 만들어진 大定17年銘(1177) 표충사 향완과 거의 같은 시기라는 점에서 이 향완에 시문된 범자와 유사한 양상을 지녔을 것으로 유추된다. (사진 6, p.135) 대정 17년명의 범자문 형태를 보게 되면 노신의 전부에 6개의 범자와 노신 몸체의 중앙에 원권을 두고 4자의 범자를 시문하였다. 大定17年銘 靑銅銀入絲香垵 구연의 전에 은입사된 6자의 梵字는  (om mani pad me hūṃ)의 6字眞言이다. 이를 종합하면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는 세상에 변함없는 보주이시여 정결케 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⁸⁾

노신 중앙에는 태선과 세선의 이중원 안에 4자의 梵字가 면입사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의 4자의 梵字 중  (a)자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³⁹⁾  (om)과  (hūṃ)은 앞의 육자진언과 같은 내용이고  (hrīḥ)는 佛法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청정무구한 세계로 가게 한다는 뜻으로서⁴⁰⁾ 주로 감탄사로서 진언의 끝에 나타

37) 六字大明王眞言 또는 觀自在菩薩微妙本心六字大明王眞言 등으로 불린다. 예로부터功德이 수승한 진언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티베트, 몽고 등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음은 어근 ‘av’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식적인 승낙, 존경하며 받아들임, 찬성, 명령, 기쁨, 브라마 등을 뜻하는 말이다.  (mani)는 ‘보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padme)는 ‘연꽃에’라는 의미이고  (hūṃ)은 『眞言集』에는 眞心種子, 阿闍如來, 東方琉璃光佛이라고 하며, 더러움과 죄악을 영원히 없애주며 보리심을 발하게 하고 모두 정토를 염원함에 귀의케 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혹은 ‘정결케하여 구원하소서’(『眞言集』, “卍字眞心種子…滅罪垢發菩提心歸淨土之願…卍字阿闍如來卽東方琉璃光佛…”.)라는 의미가 있다. 임근동, 「국내 실담문자를 통한 친수진언의 산스크리트의 미해석」, 『인도철학』 13(2003), p.276.

38) 임근동, 앞의 논문, pp.288-290.

난다. 그러나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垵에 나타나는 ॐ(om) ॐ(hriḥ)의 4자의 梵字는 각각이 하나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의미를 가지는 4자의 梵字를 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자의 梵字는 ॐ(a)는 동, ॐ(hriḥ)는 서, ॐ(om)은 북, ॐ(hūm)은 남쪽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¹⁾

이러한 표충사 향완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향완의 범자문으로 미루어 볼 때 금산사 향완에도 거의 유사한 범자문이 사용되어 최소 몸체에는 4자의 원권 범자문이 장식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대정 18년인 고려 明宗 8년인 1178년에 제작된 금산사명향완의 세부적인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첫째, 당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향로를 명확히 香垵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향완에는 제작자로서 高正이라는 고려 장인이 등장되는 점이다. 고정에 관한 행적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지만 뛰어난 입사공예의 기술로 미루어 고려 13세기 범종과 금고를 조성한 한중서와 마찬가지로 관장일 가능

39) 『眞言集』, 「阿字論」, ॐ夫阿者是一切字之本母, 一切如來支菩提心, 一切如來之眞如妙體, 一切如來之全身舍利, 歷代祖師之玄關, 一切衆生之本性, 亦是無生之理也, 是以當知八萬四天陀羅尼門, 八萬四千法藏, 諸佛萬行萬德, 百千三昧無量波羅密, 一切功德恒沙妙用皆從一阿字妙用中之所流出者也, 其爲妙也, 不可思議其爲玄也, 不能言說所以頓, 同法界者其惟阿者歟.

40) 德山暉純, 『圖說梵字』(木耳社, 1974), p.68.

41) 이용진, 앞의 논문, 2011, pp.213~214.

성이 있다. 그러나 직급을 밝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발원자로 기록된 개경의 현직 관료가 등장하면서 전직 하급관료가 銀을 희사하여 함께 만든 것으로 미루어 중앙집권과 힘을 합쳐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지방 사찰 불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향완은 당시의 主佛殿이었던 金山寺 大殿, 현재의 彌勒殿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彌勒佛像 앞에 있었던 청동제 향완이라는 점을 통해 기록에만 보이는 미륵상이 분명히 1178년 당시까지 봉안되었음을 시사한다. 명문에 기록된 기비사는 봉안처인 금산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유가종의 사찰로 판단됨으로써 기비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역사 등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필요케 되었다.

셋째, 이 향완은 비록 노부가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대부분의 문양은 다른 어떤 고려 향완보다 뛰어난 미감과 역량을 보여준다. 이 향완에 처음 등장하는 여지문과 변형된 쌍구의 당초문은 이후 고려 상감청자나 금속공예 문양에 새로운 시발점이 된 점에서 문양사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 아울러 비록 노신은 남아있지 않지만 몸체에는 4자의 원권 범자문이 시문되었을 가능성을 비슷한 시기의 고려 은입사 향완을 통해 유추해 보았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금산사 향완은 法隆寺 寶物館에 소장된 관계로 명문에 관한 자료 소개에 그칠 뿐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다. 박물관 측에서는 한동안 그 가치를 잘 모르고 향완을 거꾸로 뒤집어 전시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필자가 法隆寺 獻納寶物 共同研究라는 東京國立博物館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조사한 내용을 博物館新聞에 소개한 것이 최초였다.⁴²⁾ 비록 어떠한 연유인지 원래의 장소를 떠나 동경 국립박물관의 범룡사 보물관에 소장된 이 한 점의 은입사 향완은 지금도 일본의 국보급 유물과 나란히 전시되어 일반

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만이라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적 중요성 외에 금산사 향완이 지닌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최응천, 「日本에 있는 韓國文化財 18 - 大定18年(1178) 金山寺銘 香垵」, 『박물관신문』, 1994.8.1.

참고문헌

1. 사료

- 『高麗史』
- 『東文選』

2. 단행본

- 최응천 · 김연수, 『금속공예』, 솔출판사, 2004.
-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97.
-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94.
- _____, 『황수영전집』4 금석유문, 해안, 1999.
- 徳山暉純, 『圖說梵字』, 木耳社, 1974.
- 藏田 藏, 『日本の美術』佛具, 至文堂, 1967.
- 清水 乞, 『佛具辭典』, 京堂, 1983.

3. 도록 및 조사보고서

- 『김제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1.
-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국립문화재연구소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7.
-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 국립중앙박물관, 2006.
-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정화-입사공예』,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1997.
-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下)』, 문화재청 ·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4. 학술논문

- 김원룡, 「百濟土器와 高麗靑磁香爐：地域的 器形の 繼承」, 『미술자료』 32, 국립중앙박물관, 1983.
- 김창균, 「韓國靑銅銀入絲香垵의 研究-高麗時代 高杯形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9, 동국대 박물관, 1988.
- 이수혜, 「고려미술관 소장 청동은입사향완에 대하여」, 『高麗美術館研究紀要』 4, 고려미술관연구소, 2004.
- 이용진, 「高麗時代 佛教香爐의 傳統성과 獨創性」, 『동악미술사학』 2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임근동, 「국내 실담문자를 통한 천수진언의 산스크리트 의미해석」, 『인도철학』 13, 2003.
- 조성현, 「靑銅銀入絲 貞祐六年社福寺銘香垵」,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1996.
- 주경미, 「高麗時代 香垵의 起源」, 『미술자료』 68, 국립중앙박물관, 2002.
- 지강이, 「신라시대 향로 변천과정 연구」, 『고고역사학지』 15, 1999.
- 최응천, 「東文選과 高麗時代의 美術-工藝」, 『講座美術史』 1, 한국미술사연구소, 1988
- _____,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특히 鑄造方法과 銘文分析을 中心으로-」, 『佛教美術』 9, 동국대박물관, 1988.
- _____, 「思惱寺 遺物의 性格과 意義」,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 _____, 「고려시대의 금속공예의 장인」, 『미술사학연구』 241, 2004.
- _____, 「彌勒寺址출토 金銅手腳香爐의 造形과 特性」, 『동악미술사학』 9, 동악미술사학회, 2008,
- 황수영,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垵의 연구」, 『불교학보』 1, 1965.

5. 학위논문

- 구민정, 「高麗時代 香垵 連丘」,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李溶振, 「韓國 佛教香爐 研究」,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지강이, 「신라시대향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The Characteristic and the Importance of Silver-inlaid Incense Burner of Geumsansa Temple of Tokyo National Museum

Choi, Eung Chon Dongguk University

Geumsansa temple hyangwan(incense burner) belonged to Horyu-ji temple for a long time, but it was donated to the Tokyo National Museum and now it is on display at the gallery of Horyu-ji treasure

Although only the lower part of hyangwan was left, however the remaining inscriptions allow you to find out what was made in 1178. The delicate silver inlaid pattern and the size are evaluated as the highest quality works comparable to the Pyochungsa temple hyangwan.

According to inscriptions, this hyangwan was made of bronze and was enshrined in great hall of Geumsansa(金山寺 大殿) for Maitreya. Gojeong who was mak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very talented inlaid craftsman.

In addition, what the incumbent bureaucrats of the Gaegyeong and the former subordinate bureaucrats as a devout patrons participated in the buddhist activity shows an aspect of local buddhist activit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Kibisa temple of the mere-ideation orde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Geumsansa temple. The litch design and a pair of arabesque design on this hyangwan was first appeared was the stylistic indicator in study on pattern history of Goryeo period.

Also it is estimated that four sanskrit characters in circle was inlaid on the body of the hyangwan like Pyochungsa's hyangwan.

The Geumsansa hyangwan that has the important value of study on Goryeo hyangwan should be investigated thoroughly about the past activities such as the process of the collec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inscriptions.

Keywords : 법륜사 헌납보물(Horyuji treasures), 동경국립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 병향로(incense burner with long handle), 고려시대(Goryeo dynasty), 고배형, 은입사 향완(silver inlaid incense burner), 금산사(Geumsansa Temple), 미륵전(Hall of Maitreya), 미륵불(Maitreya), 고정(Gojeong, 高正), 관장(national craftsman, 官匠), 기비사(Gibisa temple), 유가종(Yoga order), 여지문(litch design), 당초문(arabesque design), 표충사 향완(Hyangwan of Pyochungsa Temple), 원권 범자문(sanskrit characters in circle)

